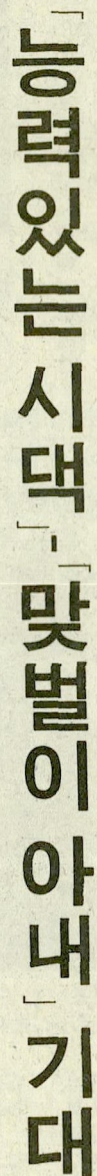


“사랑과 배우자는 별개”... 「조건」따진다

비슷하거나 상위계층 원해... 풍족-신분상승 추구



“결혼은 두번의 선택이다”

상대 스스로 선택 책임진다는 태도 중요

이 같은 결혼 풍속은 현대파
「미녀와 야수」의 만남이라
할 만하다. 야수의 비록 얼골은
흉악해도 城이라는 단어와
「백」을 가지고 있어 사람
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
반대로 「미남과 여자야수」 「미
녀와 마녀」 같은 만화는 언
디에도 없고 또 나와 반자 히트
하기도 힘들다는 것은 재미있
는 사실일까.

『신랑감이
얼굴은 못생
겨도 돈 많고
성격 무던
하면 된다는
여자들이 많
아요. 신랑
보다 시대